

기출 마무리 주간지_

1주차 (해설편)



DAY 1 비문학 - 첫 문단 읽고 화제 잡기

- 비문학 첫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첫 문단을 읽고 나서, 반드시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간다.
- 모든 지문이 그런 것은 아니므로, 화제를 맞히지 못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21~24] - 2015.11B ☆☆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사회 이론이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뭐 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론인데,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 시대, 즉 사회 상황을 함께 살펴본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바로 가 봅시다. 화제는 '19세기 시민 사회론과 그 시대의 관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첫 문단을 읽고 나면 반드시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가는 겁니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밑줄이 엄청 많죠? 이렇게 썩 다 밑줄을 치면서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부 제가 강조하는 개념의 정의, 사람의 주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설지를 조금 더 자세히

헤겔과 뒤르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며 화제를 다시 꺼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느끼면서 몸에 전율이 오면 좋겠어요 ㅎㅎ 그러면서 국어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둘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시대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거 하나였던 거예요.

21.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6%	5%	3%	17%	39%

① 정답률 보이시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좌절시켰던 문제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ㅎㅎ 하지만 화제와 구조를 집요하게 잡으면서 읽어 주셨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지(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의 관계)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시민 사회론)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결국 사회 이론은 시대와 관련이 있어!)로 끝나고 있네요. 완벽한 정답 선지입니다.

② 화제 소개까진 좋은데,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한 적은 없었죠? 적어도 2번은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③ 이것도 안 골랐을 거예요. 주장 제시까진 좋은데, 예상되는 반증 사례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죠. 애초에 자기 주장을 반박한 적이 없어요.

④ 이걸 골랐을 수도 있어요. ‘쟁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말이지요. 쟁점은 뭔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해요. 이 지문에서는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이야기할 뿐, 다른 주장과의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주장’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의 주장은 ‘사회 이론은 시대 상황에 연관된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화제를 집요하게 잡았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⑤ 이것도 주제 제시까지 좋고, 동일한 사례(시민 사회론 혹은 직업 단체)까지 맞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적은 없죠? 4번 선지 해설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지문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리가 없습니다. 전부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이 어떻게 관련되지? 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어요.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화제, 혹은 주장을 정확하게 잡고 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수능 문제입니다!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예술의 소명으로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 및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된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해요. 체계 이론 미학의 정의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쓰이는 하지만,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남’, ‘자기 연관적 체계’,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체크해둔 채로 가 봅시다.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튼 이 둘을 비교/대조할텐데, ‘뮤지컬’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비교/대조하려나 봐요. 물음이 나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화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각각의 이론이 뮤지컬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 봅시다. 첫 문단 읽고 화제 생각하기!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

일단 뮤지컬이 뭔지 알고 가야겠지? 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네요. 뮤지컬의 정의 가볍게 체크해주시고, 먼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이 뮤지컬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봅시다. 이에 따르면 뮤지컬은 한 마디로 완벽해야 한다고 해요. 극본 같은 내용도 좋아야 하고, 음악, 무용, 무대 장치

④ 주류까지는 아니라고 했죠?

⑤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정의입니다. 결국 전부 개념의 정의를 묻는 선지였네요.

22.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6%	3%	1%	4%	46%

① 멋진 춤 + 노래 -> 형식적 요소 = 리뷰! 할 수 있겠죠? 리뷰와 체계 이론 미학의 정의만 체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② 작품의 주제는 체계 이론 미학에서 관심이 없어요!

③ 소외된 사람들의 연민 = 외적 연관 ㅇㅋ?

④ 원작의 심오한 주제 = 외적 연관 ㅇㅋ?

⑤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 = 외적 연관 ㅇㅋ? 쉽죠? 그냥 맛있는 말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최근의 관점'이 의미하는 바, 즉 '체계 이론 미학'처럼 형식적인 요소만 관심을 가진다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해요.

2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79%	5%	8%

- 일단 <보기>를 정리해 보면, '그리스 비극'은 형식과 '당대인들의 인식'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모두 챙겼으니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근대의 오페라'는 음악 내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으니 체계 이론 미학에 대응되겠네요. 결국 또 둘을 비교/대조하라는 문제예요. <보기>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대응시키면서 정리해주는 태도는 수능날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① 둘이 바뀌었죠? 공통점과 차이점만 잡으면 끝나요.

② 둘이 바뀌었죠??

③ 이거네요. 둘의 정의를 정확하게 잡은 선지입니다.

④ 고전적 기준에 따르면 ㉠은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이니 낮게 평가되겠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겨울밤에 노래가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구요? 몰라요 저도.. <보기>도 없고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상황과 반응조차도 잡기 어려운 시가 나오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대단한 해석을 시도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는 ‘겨울 밤’에 ‘내 노래가 갔어요!’라고 외치는 시인 겁니다.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거예요!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전되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이 시는 많은 논란이 있던 시였어요. 핵심은 ‘반어적 표현’을 찾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시가 반어법이 쓰였다는 것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EBS를 열심히 보는 것.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시를 2018 수능 문제지에서 처음 봤지만, EBS를 열심히 봤던 학생들은 이 시를 보자마자 반어법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봤지만, 반어법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감입니다. 뭐 제가 문학천재 이런 건 아니고, 워낙 많은 문학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생긴 감, 혹은 조금이라도 살아온 인생을 통해 얻은 경험? 등을 통해 ‘이건 백퍼 묘비명 주인 욕하는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런 감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시인이 시를 욕할 리 없다.’라는 생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어요. 유일한 <보기> 역할을 하는 (다)에서도 시인이 시를 싫어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시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잖아요.

혹은 ‘묘비명’이 ‘사료’가 되는데, 그럼 역사는 도대체 뭘 기록하냐?라는 부정적인 어투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어법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

아니에요. 이걸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틀리냐는 겁니다.

FAQ

Q : 사막이 어떻게 현실의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A : 반대로 물어볼게요. 사막이 현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또한 [A]에서 분명히 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근거가 있으니, ‘사막=현실의 모습’을 허용할 수 있겠죠.

③ 죽겠다고 했으니 죽음의 상황 맞고, 죽음의 상황이면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④ 태도 변화?? 태도 변화아??? 태도 변화라면 반응이 변했다는 건데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반응이 변했다는 걸 허용하려면 명시적으로 제시되거나 최소한 어떠한 반응이 나오기라도 해야겠죠. @은 그냥 ‘밤’이라는 상황만 제시하고 있으니 태도 변화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시라도 정답만큼은 쉽게 도출된다는 걸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⑤ 밤이 무지개를 짜낸다고 했으니 둘의 이미지를 대응시켰다는 건 허용할 수 있겠고, ‘당위적 진실’은 (다)를 통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2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6%	19%	9%	61%

① (다)에 의하면 시는 작가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에 나온 ‘노래’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었는데 (나=노래) 그럼 ‘노래’를 화자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② ‘노래’가 집조차 없는 계집애에게 ‘갔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해석을 보고 ‘나쁘지 않네~’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선지 판단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③ ‘묘비명’에 쓰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반어적 표현’을 잡지 못했으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④ 시나 소설 하나 읽지 않고 죽은 ‘묘비명’의 주인공을 비판하면서 그 묘비명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묘비명은 시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야 한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과정을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⑤ ?? (다)에서 주구장창 ‘시’는 이러이러 해야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를 읽지 않고도

DAY 2 비문학 - 정보 때려박는 지문 읽기

- 지문을 읽으며 정보량 때문에 버거운 느낌이 들면,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해본다.
- 그 방식이 비례/증감 관계일 경우에는 메모를 하면서, 과정서술일 경우에는 번호를 매기면서 끊어 읽는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출제된다!)
- 이런 방식이 아니라도, 그 정보가 왜 나왔는지, 즉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 정보량이 적든 많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건지'이다.

[36~38] - 2011.06 ☆☆☆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

36.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66%	8%	9%	6%

① 4행정 '동력 발생' 주기요? 동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네요. 바로 2문단에 체크해둔 과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서 '피스톤의 이동'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선지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깐요. 1번 과정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가고, 3번 과정에서 다시 상사점으로 밀고, 6번 과정에선 또 하사점으로 밀리네요. 그러다가 8번 과정에선? 다시 상사점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피스톤은 2번 왕복하네요. 이렇게 과정을 끊

38.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6%	6%	9%	23%	6%

- <보기>부터 조져봅시다. 고원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연료량을 고정할 경우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물어보는 걸 생각해봅시다. 대기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량은 고정되어 있구요. 다른 조건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연료와 공기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네요. 오 우리 화제의 흐름을 잡으면서 읽을 때, 연료와 공기의 비율 뭐 이런 얘기 봤던 거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무려 비례 /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먼저 근접성 기법입니다. 간단해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건 ‘단말기의 위치를 찾는 법’이니 저처럼 뭘 단말기의 위치를 보는지 위주로 확인하셔야 해요.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이번엔 삼변측량 기법입니다. 애도 역시 어디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는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1번 과정에서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 공간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 구역마다 기준점을 줘야하니 기준점의 개수는 많아지겠네요. 이걸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묻는 게 몇 번 과정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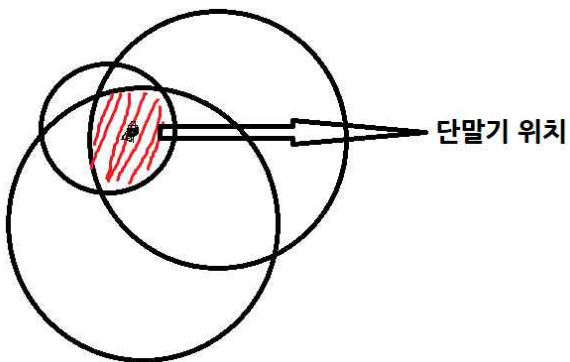
②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3번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6번 과정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준점의 위치를 찾고 있네요. 6번 과정이 비로소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이기에, 이 과정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1~6번 과정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점 꼭 인지하도록 합니다.

③ 단말기의 위치가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미리 찾아둔 정보이기에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위치 지도 기법에서 단

뒷북 해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는 게,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단말기의 위치가 비콘 3쪽에 있음을 확인했으니, 어떻게 측정하든 비콘 3에 가깝게 측정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불어 ‘장애물’을 고려하는 것도 3번 선지에서 이미 해본 내용이니, 이 선지도 ‘문제의 연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⑤ 비콘 2의 세기만 약해지면 이번엔 비콘 2의 반지름만 커집니다. 그럼 또 아래와 같은 교점이 정해지지 않아 세 원의 공통 영역의 중심점이 단말기 위치가 되는 형상이 되겠죠.



‘어머니’라는 인물이 ‘그’라는 인물에게 넋두리를 뱉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구호소 식당’으로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 곳에 가자 ‘그’가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어요. 인물의 심리가 나왔으니 그 근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읽어 봤더니 어머니가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다.’라고 했네요. 아 아마도 이 구호소 식당에서 도둑질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구요. 이렇게 읽으니 내용이 잘 이해되죠? 도둑질을 꼭 집어서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뭔가 잘못했으니깐 그럴것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도 하고.. 냉랭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와앙

개가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을 거예요. 사건 전개 속도라는 개념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으니 꼭 숙지하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한 시점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는 겁니다!

④ 관찰자의 입장이면, 즉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야 해요. 이 작품은 ‘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차이는 ‘심리의 근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라는 걸 알아 두시면 됩니다.

⑤ 이 소설은 오로지 ‘그’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44. ③

선지	①	②	③	
----	---	---	---	--

은 모든 내용을 외울 수 없기에 큰 흐름만 잡고 세세한 정보는 문제 풀 때 왔다갔다 해야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왔다갔다하기 위해 적어도 ‘정보의 위치’는 기억을 하는 거구요.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려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지문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지문은 이런 흐름이고, 이 정보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여기 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렌즈에서 반

계 구동 모터의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니까요. CD를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는 걸 한번 인식했으니, 1번 선지에서선 ‘직선’만 보고도 바로 광학계 구동 모터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또 문제의 연계성이 쓰이고 있네요.

②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건 광 픽업 장치의 정의인데(이것도 28번 문제의 5번 선지에서 이미 확인했죠?) 애는 CD 아래에 있다고 했네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쏘겠죠. 계속 정의를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③ 일단 선지에서 묻는 걸 생각해 봅시다. ‘피트’와 ‘랜드’ 중 누구의 ‘출력값’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문단에서 피트와 랜드가 비교된다는 생각은 했었죠? 최소한 그들의 정의는 체크했으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이들은

었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지문의 화제이자 해결책인 ‘how’가 되는 것이죠. 계약과 판결의 충돌이라는 why를 ‘둘 다 들어 준다’라는 방식으로 멋지게 제거한 것이 되는 거죠. 기억합시다. 항상 문제해결형 지문에서 how는 why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 지문은 당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지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문은 통칭 ‘기판력’ 지문으로 불리죠. 많은 수험생들이 임팩트가 가장 강한 정보인 기판력이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 봤지만 사실 이 지문에서 기판력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소송할 수 있고, 그게 첫 문단 같은 이야기를 해결해준다’라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화제를 제대로 잡고 독해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이야기를 던

②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건 판결 이전에 작성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어요. 새로운 사정이 아니니까요. 맞는 선지네요.

③ (나)의 경우에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네요. 마치 지문의 첫 번째 소송처럼 말이죠. 그 때는 제자가 스승에게 수강료를 주지 않아도 되니 을도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물론 돈은 제때제때 갚읍시다 ㅎㅎ

④ (나)의 경우에는 11월 3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정이 생기네요. 이 경우 갑은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니 돈을 갚으라고 다시 소송할 것이고, 이 경우 갑이 승소하겠네요. 마치 지문의 스승처럼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⑤ 2월 15일에 갚기로 한 계약서가

④ (나)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읽었다면 보일 겁니다. 과거 회상이라는 상황을 통해 과거 행적을 허용할 수 있고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은 이 작품의 요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⑤ 역시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객관적인 요소만 잡고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35.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5%	5%	81%

- 일단 ㉠은 ‘풀’인데 ‘괴 아니 조흠썌냐, 우리는 너희만 못

③ ‘표면에 드러난 화자’란 ‘나’, ‘우리’ 같은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E]에는 그게 없으니 허용이 안 됩니다.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는 허용이 될 것 같아요. 각각 기린과 산짐승, 소나무 가지들 등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깐요.

④ ‘거리감’이란 개념은 문학에서는 심리적인 거리감, 물리적인 거리감 모두를 포괄하는데, 여기서는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자와 대상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인지 부정적인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서 화자와 기린이 서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는 아닌 거 같아요. 따라서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겠죠. [E] 부분의 일체감은 약간 애매하지만요.

⑤ 그럼 이게 허용 가능한 선지일 텐데, 왜 그런지 봅시다. 일단 은거의 공간, 생명 위협받은 고립의 공간은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D]에는 화자가 선택한’인데, 이게 위에서 말했듯이 ‘내 기린’ 덕에

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 확인했다고 가정하고, 정답인 2번 선지만 보겠습니다.

②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확인해보니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가 원문이네요. 이제 보니, 그들은 몸으로 밀어야만 하는 쇠문을 탐구한 게 아니라 탐구해야만 하는 인생을 몸으로 밀고 있던 거네요. 와.. 그러니까 양면성은 맞는데, 지문 내용과 선지 내용이 반대라서 틀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문학을 변별력 있게 내는 방법은 상세한 내용일치 말고는 ‘없습니다.’ 선지 판단이 힘들 때는 절대 고민하지 말고 <보기>나 지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용 일치’ 수준에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_오르막길(윤종신)